

평화위한 종교간 책임기

‘종교간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종교간의 벽이 오히려 두터워진 때문일까? 여러 종교의 수행자와 성직자들이 타종교의 경전이나 저술을 읽고, 그 감상을 밝히는 방식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그 첫 번째로 최근 2년간 <장자 산책>, <대학 중용 읽기>, <금강경 읽기> 등을 펴낸 이현주57 목사의 글을 실는다.

편협된 ‘나’ 깨부수는 망치



이현주 목사가 읽은 ‘금강경’

<금강경>은 눈부시게 빛나는 금강석 망치다. 모든 허상(虛相)을 두드려 부수으로써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잡히지 않는 실상을 드러낸다. 이 망치에 맞으면 깨어지지 않는 물건이 없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자면, 한편 당황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쾌하다. 내가 무엇 무엇인줄도 몰랐는데 그 일이 깨어질 때에 당황스러우면서 통쾌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에 입문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다가 좋은 선지식을 만나 차츰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 어느새 산이 산으로 물이 물로 보이지 않는다. 산이 산 아닌 것들의 쌓임이고, 물이 물 아닌 것들의 모임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산은 산 아님이요, 물은 물 아님이라고 말한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이 모두 그것들의 비어있음 즉 공(空)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알’이 어느새 ‘양(量)’으로 바뀌어 사람을 망쳐 놓는다. ‘계법이 공이라, 너와 내가 어찌 따로 있으리오’라고 떠들며 대변서 위아래 없이 함부로 처신하는가 하면 무위도식하는 삶을 오히려 자랑스레 여긴다. 이런 사람을 두고 공변(空變)에 빠졌다고 말한다.

나누지 못하는 이들에 ‘空’의 평등 가르침 제시

가르침 같다. 적어도 산이 산 아님이요, 물이 물 아님을 알았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데까지 이른 사람에게 그 ‘알’이 ‘알’으로 바뀌지 못하도록 깨어 부수는 망치가 바로 <금강경>이라는 예기다. 그래서 이 경전은 처음부터 수보리라는 장로로 대표되는 대비구들을 상대로 배설어진 가르침임을 밝혔다. 현재 많은 침보로 보시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란 말이다. 아직 산이 산 아님을 모르고 물이 물 아님을 보지 못한 중생들,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도 남에게 나눠주는 일을 미처 배우지 못한 자들, 오직 저와 제 가족나라, 민족, 주, 종교...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밖에 모르는 자들은 <금강경>을 읽을 자격이 없다. 읽어도 그 뜻을 이해 못할 것이다

독립하여 존재하는 ‘나’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이 금강 망치에 깨어치는 모든 허상의 우두머리요, 바탕이다. 이것 하나 깨어지면 문득 환연무성(忽然無聲)의 불지(佛地)가 눈앞에 전개되거나, 그것을 보는 나도 없고 여기까지가 불지라는 경계 또한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건 온통 앓음 뿐이다.

여기에 무슨 말을 더 보탤 것인가? <금강경>이 <금강경>까지 두드려 부숴놓는 망치가 어디 있으며 그것을 휘두른 자 또한 어디 있으리오. 그러나 아직 ‘나’는 <금강경>을 더 읽어야 한다. 그것을 읽으면서 깨어지는 ‘나’를 통쾌한 아픔으로 느끼는 행복에 당분간 젖어 있어야 한다. 모두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진대, 무엇을 조바심하여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기계도 불성 있어요”

‘로봇에게 배우는 불교’ 모리 마사히로 지음

로봇공학이라는 창을 통하여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로봇에게 배우는 불교>(경서원)가 우리말로 옮겨져 나왔다. 지은이는 일본 로봇 공학계의 권위자 모리 마사히로 씨. 그는 로봇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다소 허황된 주장이라고 판단할 독자들도 위해 그는 들머리에서 ‘기계적 고안물인 로봇이 무슨 불성을 있는냐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교도 로봇도 알지 못한다’고 말문을 엮는다.

지은이는 고등학교를 끝지르 입학해 끝지르에서 두 번째로 졸업할 정도로 성적은 엉망이었지만 수학과 물리에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고야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한 그는 사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다소 엉뚱하게도 ‘손가락 연구’를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로봇의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이 연구에서 몸의 균형 유지, 온도계, 계산기 등 손과 손가락의 역할과 기능이 무

인간처럼 로봇도空的 발현

부처님이 조종·제어 역할

공무진함과 그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우주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나름의 철학을 얻는다. 새끼손가락의 경우, 그 가늘고 작음으로써 인간 전체를 살린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살의 진리를 로봇 연구를 통해서 배웠다’고 고백한다. 불성도 마찬가지다. 그는 로봇의 불성 탐구를 통해 인간 불성을 찾는다.

“우리들은 모두 공(空)에 의해 발현된 색(色)과 다름없다. 이것이 바로 ‘머리털 한 올에 이르러까지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

로봇에게 배우는 불교



어린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결국은 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란 예기다. 부처님께서 동맹이에도 불성이 있다고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내가 만든 로봇은, 부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내가 설계 제작한 것이므로 부처님이 로봇을 설계 제작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만든 인간이 부처님께서 부여한 의지에 의하여 같은 부처님께서 만든 기계를 조정하며 제어하고 있다고 해도 마땅할 것이다.

결국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한 대로여서, 제어하는 편도 제어당하는 편도 불성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계(로봇)를 작동할 때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은이의 생각은 반대다. 부처님이 불성을 움직이고 있다고. 값 9천원.

김종근 기자 gamaj@buddhapa.com

쓰레기 일렉트로닉스 통한다.”

그러면 로봇은 어떠한가. 지은이는 로봇 또한 공(空)에 의해 만들어진 색(色)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로봇은 공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결국은 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란 예기다. 부처님께서 동맹이에도 불성이 있다고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내가 만든 로봇은, 부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내가 설계 제작한 것이므로 부처님이 로봇을 설계 제작한 셈이다.”

삶의 숨결 묻어나는 산문집

‘길에는 먼저 간 사람의...’ 고은 지음



한곳에 있기를 마다하고 이곳 저곳을 떠도는 시인 고은. 여행 자 고은의 삶이 녹아 있는 산문집 <길에는 먼저 간 사람의 자취가 있다>가 나왔다. 고은 시인이 세상 속으로 길을 떠나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이국의 도시를 순례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읽고, 시를 쓰면서 건져 올린 세상 이야기 45편을 모아 묶은 책이다.

만주 벌판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꿈꾸고 한반도의 삶과 역사를 계승하는 백두대간을 여행하며 국토에의 감격을 적은 ‘국토에의 감각’, 허버드에서 보내는 시인의 감회와 케리 스나이더와의 인연에 관한 글 ‘허버드 편지 그리고 스나이더’, 미국 허버드대, 버클리대 객원교수를 마치고 귀국 길에 이집트와 그리스 그리고 터키 지역을 두 달간 기행하며 인류가 창조한 문화의 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성찰한 기행문 ‘고대의 떠돌이’ 등 모두 7부로 구성되어 있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원대한 中國文化 이해 디딤돌

‘중국문화사’ 김원중 지음



문화는 인류가 창조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총화로 한 사회집단을 이해하는 디딤돌이다. 이런 점에서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신간 <중국문화사> (유류문화사는 중국 최고의 문화유적이 피어난 한 상 주시대에 54 신문화 운동과 그 이후까지 중국문화의 변천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중국문화사 해설서다. 지은이는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원중 교수.

책은 북방 호족 세력의 남하로 이민족과의 충돌과 융합이 본격화되는 위진 남북조시대에서부터 중화 의식에 대한 재검토와 반성이 이뤄졌던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따른 문화사적 흐름과 특성을 서술한다. 값 1만8천원. 김종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적정 역시인도 정경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효 립
2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3	불교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4	영가천도	우 용	효 립
5	선림보전	원 희	장 경 각
6	보문 사라진다	김 설 권	자재의나무
7	이론 아침 나를 기억하라	퇴 날 한	디자인하우스
8	소박한 밥상	황현나영	정신세계사
9	아, 일타 컨스님	김 현 준	효 립
10	그대 스스로 변화될 시작하라	달라리아	아 테 네

도서 안내: (02)737-0695

www.yoslamun.com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4

일체 유심조 궤뚫은 유식학 소의경전

‘해심밀경’ 서대원 역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서대원(서울대 불학사상연구소 박사후 과정) 씨가 관역한 <해심밀경>(서경사)은 바로 이러한 일체유심조를 말해 주는 가장 대표적 경전이다.

일반적인 구분에 따라 불교를 소승과 대승으로 나눈다면, 대승불교는 다시 중관파와 유식파로 분류할 수 있다. 중관이란 공(空)을 강조하는 학파로서,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인연에 의해 흩어지므로 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반면에 유식(唯識)을 강조하는 학파로서, 오직 마음뿐이며 바깥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의 활동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해심밀경>은 바로 이 유식파의 가장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소의 경전이다. 이 경은 모두 8품으로 구성되어 있



다. 1품 설법의 장(서품)에서는 경을 설하게 된 장소와 배경을 말하고 있고, 2품 진리에 대하여(승의제상품)에서는 언어와 사변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를 설명한다. 3품 마음에 관하여(심식상품)는 윤회의 주체인 아타나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계의 존재양상을 설명하고, 4품 모든 부처님의 말씀(일체법상품)은 일체법을 변계소집상, 의타기상, 원성실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5품 세 가지 자성 없음(무자성상품)은 상·생·승의 자성 없음을 말하고, 6품 수행 1: 사마타와 비발사나(분별유기품)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인 사마타와 비발사나

에 대해서, 7품 수행 2: 심지와 심바라밀다(지바라밀다품)는 보살의 수행과 그 수행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경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8품 여래의 경지(여래성소작사품)는 여래법신의 모습과 화신의 여러 가지 원만한 공덕을 말한다.

이야기의 즐거기가 있는 다른 대승경전과는 달리 <해심밀경>은 법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지관수행의 단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경을 설하게 된 장소와 배경을 비롯해 언어와 사변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고 보살의 수행과 그 수행에 의해 얻게 되는 경지 등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 경을 접하는 불자는 처음부터 겁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교의 깊고 오묘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식공부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값 1만4천원.

김종근 기자

金河堂 光德 大禪師 行蹟碑 및 浮屠 建立 除幕式

스님, 스님의 우렁찬 사자후는

오늘도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소리 없는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었지만 스님께서 세연을 다하시고 적멸의 바다에 이르신 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이 가을, 문중의 여러 스님들과 평소 스님을 흠모하고 따르던 불자들은 스님의 행적비와 부도를 건립하고 세세생생토록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불교계에 남기신 스님의 크나큰 족적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었습니까.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중의 공부처럼 여겨질 때 불교를 대중의 것으로, 불성을 만인의 공으로 돌려주시며 중생을 일깨워주시고,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대중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선지식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행적을 온 몸으로 보이셨으니, 출가하시고 후학인 수행을 하시고, 풍단이 어려웠을 때에는 선뜻 나서서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끝없는 전법의 원력으로 충만했던 스님의 모습이 선연합니다. 스님께서 일생동안 밝혀놓으신 정진과 수도와 포교의 불빛은 오늘도 파랑새 타오르고 있으며, 만 중생의 가슴을 울리던 산중에 찬 사자후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스님께서는 생전 모습 그대로 상에 집착하지 말라시며 산골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법과 수행이 풀이 아님을 일깨우시며, 우리 시대 대산지식으로 한치의 소홀함 없는 일생을 보여주시신 스님의 깊은 뜻은 세세생생 기려져야 할 귀감이기에 스님의 출가 본사인 선찰 대본산 법어사에 부도를 모시고 행적비로나 마 새겨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여적경(如如寂靜)한 자리에서 본래 나무신 바 없이 그 모습을 닦으시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지만 스님의 우렁찬 사자후는 오늘도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소리 없는 소리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삼가 스님의 각력에 거듭 들뜨려 질하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수회동참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나무 마하반아바라미!

禪刹大和山 梵魚寺 門徒合衆

- 언어: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 일시: 2001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선찰 대본산 법어사

· 주관: 불광사 불광법회 서울 송파구 석촌동160-1 전화 02-413-6060 팩스 02-413-6817 http://www.bulgwang.org E-mail webmaster@bulgwang.org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행장

1927년 경기 화성 출생 | 1950년 부산 법어사 입산 | 1951년 부산 법어사 청동당 집전
1955년 부산 법어사 법산 선사로 은사로 역임
1956년 대구에 수계 대학 창립, 초대학장 1958년 조계종 중앙집행위원회 | 1962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1963년 대한불교조계종 총회 지도도사 | 1965년~1967년 법문사 주지, 학교법인 대한학원 이사
1966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 1969년 조계종 총무원 고무원, 재단법인 대학회 감사
1971년 조계종 총무원 중앙총회 부의장, 청담 스님 일선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1973년 재단법인 대학회 이사 | 1974년~1999년 재단법인 대학회 이사장, 순수불교 운동지 역간 '불광', 발행인
1975년~1999년 불광법회 회장, 법주 | 1977년~1995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역임
1979년~1999년 불광신문부 회장, 발행인 | 1990년~1995년 선찰 대본산 법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단계대장
1992년~1999년 도사출신 한강수 계승, 발행인 |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덕학원 이사 |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입반
역사서 - 생의 외면에서 그 해답까지, 삶과 빛을 찾아, 빛의 목소리, 번안심경 강의, 보현행림종교, 영매의 법학, 메아리 없는 골짜기, 민법과 법학이 있는 자, 선공백전, 육조단결, 부오론종강, 관음경, 지장경, 금강반야바라미경, 천수관음경, 법치요전 등 다수
행복기 - 성지 국외고성곡 보현행림종 부오론종강, 이해하여의 노래, 연꽃의 눈, 천천히 이 어둠, 초파일 송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내미음, 일출, 대왕의 태양, 혼자 있는 법, 보살의 사랑, 우리는 불국토의 주인입니다, 번영하는 사회의 기도 등 다수 저서